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제10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 별뿔별 찾기> 시상식 개최



▲ 제10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 별뿔별 찾기> (뒷줄 네번째부터) SBS플러스 구분근본부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상모이사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상임이사 (앞줄) 드라마극본공모전 수상자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정상모)과 SBS플러스가 주최하고 롯데홈쇼핑이 후원하는 제10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 별뿔별 찾기>가 지난 11월 22일(목) SBS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되었다.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 별뿔별 찾기>는 재단의 진흥사업 중 하나로 신인 드라마작가 발굴과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활력과 감동을 줄 순수 창작드라마를 찾기 위해 2008년에 신설되어 올 해 1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더 많은 작품을 선정하여 격려하고자 장려상이 추가 되었으며 30여명의 방송국관계자, 제작사, 작가 등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독창성, 구성력, 제작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예심 및 본심, 최종심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미니시리즈 부문에서 대상 1편, 우수상 1편, SBS플러스 1편, 장려상 1편의 극본이 선정되어 총 상금 45,000,000 원을 지급하였다.

[드라마극본공모전 수상자]

- 대상 20,000,000원 문현경 작가의 <출사표>
- 우수상 10,000,000원 이주연 작가의 <하이에나>
- SBS플러스상 10,000,000원 김가은 작가의 <사랑이라말해요>
- 장려상 5,000,000원 김정미 작가의 <규수탐정 장계향>

장려상의 김정미작가(규수탐정 장계향)는 “드라마작가의 길로 들어서면서 쓴 작품이 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좋은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 라고 말했으며, SBS플러스상을 수상한 김가은 작가(사랑이라말해요)는 “제5회 <사막의 별똥별 찾기>부터 매년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제10회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팬찮은 사람, 팬찮은 작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우수상의 이주연작가(하이에나)는 “전격 길바닥 액션멜로 장르인 하이에나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수상에 그치지 않고 작품화하여 브라운관에 선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 대상의 문현경작가(출사표)는 “평소 임상춘, 오지영작가님의 팬인데 두 분의 작가님들 필모그래피를 찾아가다보니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사막의 별똥별 찾기>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극본을 출품했는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라고 말했다.

올 해 공모전은 미니시리즈 부문에서 402편 접수되었으며, 휴먼코미디, 액션멜로정치, 로맨틱멜로, 추리코믹사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작품 구성력이 크게 향상 됐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이다.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상모이사장, 미니시리즈부문 대상수상작<출사표> 문현경작가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상임이사, 미니시리즈부문 우수상수상작<하이에나> 이주연작가



▲ SBS플러스 구본근본부장, 미니시리즈부문 SBS플러스수상작<사랑이라말해요> 김가은작가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상임이사, 미니시리즈부문 장려상수상작<하이에나> 김정미작가

역대당선작 중 2015년 오지영작가 수상작 <쇼핑왕루이>가 MBC에 방송되었으며, 2010년 하명희작가 수상작 <여깁패 혜정>이 <닥터스>로 SBS에 방송되었다. 이 후 두 작가는 <내 뒤에 테리우스>와 <상류사회>, <사랑의 온도>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선작의 방영뿐만 아니라 2013년도 수상자인 임상춘 작가는 <사막의 별똥별 찾기>공모전으로 등용한 이후, KBS에서 방영된 <쌈, 마이웨이>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현재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은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에 계약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막의 별똥별 찾기>는 방송사가 아닌 영역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드라마극본공모전으로 방송영상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해 당선된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제작하여 드라마제작사와 방송사에 배포하여 실제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 상임이사는 “드라마는 어떤 콘텐츠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현대인 생활 속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주역으로 성장하고, 시청자들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드라마는 웰메이드 K-DRAMA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작품들이 해외에서 리메이크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드라마가 해외에서 사랑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장르의 다양성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장르물들이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해외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소재로 쉽게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 재단은 드라마극본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신인 작가들에게는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등용문이 되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방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